

중동의 세속 공화정, 이슬람 왕정,  
세속 왕정체제 간 이슬람주의 운동 비교 연구\*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중심으로-

|안 승 훈\*\*|  
Ahn, Sung-Hun

**Comparative Study on the Islamist Movements in the  
Secular Republic, Islamic Monarchy, and Secular  
Monarchy of the Middle Ea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nd compare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slamist movement in the secular republic, Islamist monarchy, secular monarchy of the Middle East. The Middle East has suffered periodical and institutional instability in politics since the emergence of modern state-building, and in particular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blurred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religion in the region has contributed to this political instability. As one of the main factors causing the conflict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Islamism and its involvement in politics are recognized as having strengthen the tens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Premised on this political tension,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Islamist movement and secular state power in the Middle East under the secular republican, Islamist monarchic, and secular monarchic systems. To this end, four state-cases(Egypt, Turkey, Saudi Arabia,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E-mail: chillye1010@naver.com



and Jordan) will be used to illustrate the featur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lamist movement and secular state power. In addition, this research will addres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Islamist movements that have developed in these four states, as well as evaluate the politic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e Islamist movement in the Middle East.

**[Key Words: Middle Eastern Politics, Islamism, Egypt, Turkey, Saudi Arabia, Jordan]**

## I. 서론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중동에서의 국가체제별 정치권력과 종교권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중동은 20세기 초, 근대 국가의 형성 시기부터 체질적인 정치 불안정을 겪어왔다. 특히 정치-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은 중동의 체질적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양자 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정립되지 못한 채 긴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미 16세기 종교 개혁 운동과 30년 전쟁 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The Peace of Westfalen)등을 거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된 반면, 이에 반해 중동은, 역사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영역이 정치 영역까지 장악하면서, 이런 역사적 전통에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도 양자 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가 중동 사회를 지배하자 이슬람은 정치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이슬람주의라는 서구에 대한 저항이념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이집트, 터키, 이란 등 중동 자국들은 자체 개혁식의 서구식 근대화를 추구하였지만, 이는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체제를 강화하려는 제한적 개혁에 머물면서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리고 제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중동 내 다수의 신생 독립 국가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등 세속주의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

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주의 운동은 권위주의 정권들의 탄압과 견제 속에서 사회 변화의 세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즉 20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이념으로 등장한 이슬람주의는 제2차 대전 이후 중동 내 세속주의 정권하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 내지 대안 세력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정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주의 운동은 중동의 민주화 진행 과정 속에서 타 정치 세력과의 선거 경쟁을 통해 집권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유정의당이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무슬림형제단의 지도자 무르시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치동원이나 정치세력화 측면에서 소수 진영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슬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체제별, 정치권력과 종교권력 간의 역학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와 함께 각 체제 간 이슬람주의 운동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연구 비교 사례로 공화정 체제, 이집트와 터키, 세속 왕정 체제, 요르단, 이슬람 왕정체제 사우디를 선택하여 연구 사례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주의 운동의 다양성과 함께 중동 사회에서 이슬람주의 지니는 정치적 함의와 의미를 함께 다룰 것이다.

〈중동의 정치-종교체제 구분〉

| 비교    | 왕정체제    | 공화정체제   |
|-------|---------|---------|
| 세속주의  | 요르단     | 이집트, 터키 |
| 이슬람주의 |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국내외 이슬람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2001년 9/11테러 발생 이후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 9/11테러 이전까지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는 이슬람주의 사상이



나 인물에 대한 연구였으나 9/11테러 이후 이슬람주의 조직과 테러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된 국내 선행 연구들은 2001년 이후에 발행된 연구물들로 장병욱(2008), 정상률(2004, 2014, 2016), 황병하(2012, 2016), 홍미정(2014), 최영철(2014) 등이다. 그리고 외국의 선행 연구논문들은 Mandaville, Peter(2014), Milton-Edwards, Beverley(1996), Dalacoura, Katerina(2011), Nasr, Vali(2005), Robinson, Glenn(1998), Wickham, Carrie Rosefsky(2015) 등을 활용하였다.

## II. 이슬람주의의 정의와 유형

### 1. 이슬람주의의 정의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이슬람주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이라고 알려진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의 가치, 신념, 신앙 체계를 국가와 사회 전체에 실현시키려는 정치 및 사회 운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슬람법 샤리아(Sharia)에 의거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의 건설과 통치 체제의 구축, 범이슬람주의(Pan-Islamism)에 기반을 둔 단일 정치체제의 건설, 더 나아가 이슬람 세계로부터 세속적 정치 이념 및 서구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침투를 저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Berman 2003, 258). 알카에다(al-Qaeda)와 IS(Islamic State)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의 경우, 샤리아에 기반한 이슬람 국가 건설과 함께 중세적 칼리프제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한다(Soage 2009, 887-896). 이외에도 이슬람주의를 정치,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지도하는 이슬람 운동 내지, 무슬림 사회 통합의 기초로 삼는 종교적 이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대 정치 및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슬람의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이슬람 정치 운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Maajid 2015, 167; 정상률 2014, 105-107). 비록 이슬람주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이슬람법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정치 체제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 운동 내지 정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Davidson 1998, 97-97).

## 2. 이슬람주의 운동의 유형

이슬람주의 운동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 및 사회 운동의 측면에서 동일한 형태를 띠기보다는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운동 형태로 발전해 왔다. 최근 학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두 유형 분류를 보면, 크게 (1) 운동의 급진성에 따라 온건 이슬람주의와 급진 이슬람주의로 나누기도 하며 (2) 운동의 성격에 따라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슬람 개혁주의로 나누기도 한다.

먼저 온건 이슬람주의와 급진 이슬람주의를 보면, 온건 이슬람주의는 보편적 민주주의 및 세속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다른 정당들과 선거라는 합법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권력을 지향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당들로 튀니지의 엔나흐다(Ennahda: Resistance Party)당과 파키스탄의 JI(Jamaat-e-Islami)당이 있다. 현재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주의 정당들은 온건적 이슬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논란은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Hamas)와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 또한 선거 및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건 이슬람주의 진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급진 이슬람주의 운동은 민주주의 및 세속적인 정치 체제를 거부하고, 대신 샤리아에 기초한 이슬람 국가 건설과 함께 칼리프제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급진 이슬람주의 정치 단체로는, 탈레반, 알카에다, IS가 있으며, 이들은 폭력에 의존한 지하드를 옹호하고, 세속적인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 분류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슬람 개혁주의가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살라피즘(Salafism)과 와하비즘(Wahhabism)이 있다. 살라피즘은 이슬람을 외부의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정화하고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 공동체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성향의 이슬람 부흥운동이다. 와하비즘은 18세기 살라피즘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 보수주의 신학자 와하비(Muhammad Ibn Abdul Wahhab)에 의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탄생한 이슬람 부흥 운동이다. 와하비즘은 이슬람 경전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해석도 금기시하고, 철저하게 문자주의적 경전 해석을 주장한다. 특히 1950년대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주요 학자들이 나세르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거 사우디로 피신하였는데, 이때 와하비즘의 원리주의적 신학과 무슬림 형제단의 실천적 강령이 결합해 이슬람주의 운동의 급진화를 더욱 가속시켰다(Mandaville 2014, p. 50).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1928년에 창설된 무슬림 형제단 운동이다. 무슬림 형제단 운동은 살라피즘과 와하비즘의 극단적인 종교적 도그마를 비판하면서 이슬람의 중세적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즉, 이슬람을 바탕으로 서구의 기술 및 과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개혁주의 이념은 무슬림 형제단이 후에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의 다수 국가들에서 강력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토대가 되었으며, 사회 운동 및 정치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Mandaville 2014, p. 60).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 형제단은 1928년 이슬람 학자이자 이집트 이스마일리아(Ismailiyya) 지역 초등학교 교사였던 하산 알-반나(Hassan al-Banna)에 의해 조직되었다. 마우두디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알-반나는 당시 20세기 초 이집트 사회가 영국 식민주의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세속화 및 서구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슬람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범이슬람 부흥 운동을 주장하였다(Husaini 1956, 62-63; Mansfield 2013, 65).

### Ⅲ. 국가체제별 이슬람주의 운동의 형성과 발전

#### 1. 세속 공화정 체제: 이집트 - 긴장과 갈등

이집트는 1922년 영국으로부터 명목상 왕정체제로 독립을 성취하였지만 여전히 영국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았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난 후 영국군 철수 후에도 이집트 왕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집트 왕정은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잃었으며 그 결과 국가 통치에 있어 다양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이에 가말 압델 나세르(Gamel Abdel Nasser)는 1952년 자유장교단(The Free Officers)을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1956년 6월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하였다(Dawisha 2002, 25). 무슬림 형제단은 왕정체제하에서 이집트 군부와 왕정 타도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나세르가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 아랍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양측 간의 관계는 갈등 관계로 전환되었다. 즉 토지 개혁 정책과 같은 나세르 정부의 개혁 정책은 세속적 근대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를 목표로 한 무슬림 형제단과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나세르 정부가 추진한 보통 교육제도의 도입과 남녀 평등권의 법적 보장은 이슬람주의 무슬림 형제단이 수용하기 힘든 정책이었다. 따라서 왕정체제하에서의 상호협력 관계는 나세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졌고 이런 갈등은 1953년 10월 무슬림 형제단의 나세르 암살 미수 사건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세르는 무슬림 형제단을 반정부 불법 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무슬림 형제단 최고 지도자 하산 알-후다이비(Hassan al-Hudaybi)를 포함한 약 6,000여명 이상의 당원들이 체포 구금되기도 하였다(Mura 2014, 29-54).

1956년 수에즈 전쟁에서 외교적 승리를 거두면서 나세르는 명실상부한 아랍



세계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58년 시리아와의 통합을 통한 통일아랍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런 대외적인 성공에 힘입어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나세르는 강경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온건적인 이슬람 진영에 대해서는 모스크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자체 방송국의 설립을 측면 지원하였지만, 무슬림 형제단을 포함한 이슬람 강경파 진영에 대해서는 기존의 탄압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1970년 나세르의 사망과 함께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사다트(Muhammad Anwar Sadat)는 나세르와는 달리 무슬림 형제단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슬림 형제단과의 화해가 절실하였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이들에 대한 유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이전 나세르 정권 하에서 장기간 구금되어있던 형제단 지도부와 당원들을 대거 석방하였으며, 1971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을 정식 이집트의 국교로 선포하였다. 이런 사다트 정권의 유화정책은 나세르 정권의 탄압 정책에 대한 부채를 털어낸다는 전략적 판단과 함께, 사다트 정부 하에서 잔존해 있던 나세르 정권의 구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황병하 2012, 76-77).

그러나 사다트의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유화 정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1970년대 후반 들어 무슬림 형제단이 온건화 되고 친정부 성향을 띠자 조직 내 강경파들은 형제단에서 탈퇴해 독립 조직인 이슬람해방조직(Islamic Liberation Organization: ILO)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슬람해방조직은 1974년 카이로 정부 청사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였다. 사다트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로 형제단을 의심하였고, 이슬람주의 조직에 대한 온건적인 대응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특히 1974년 이집트-이스라엘 간 군사 분리안 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반발한 무슬림 형제단이 극렬하게 반대 시위를 일으키자, 사다트 정부는 급속하게 기존의 강경정책으로 선화하였다. 대외적 요인 또한 이집트 정부와 무슬림 형제단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사다트 정부는 외교 정책에 있어 이전 나세르의 범아랍민족주의를 포기하고 미국 및 유럽 등 친 서방 정책으로 추진하



였으며, 특히 1979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사다트 정부와 이슬람주의 진영 간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사다트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무바라크(Honsi Mubarak)는 이미 사다트 암살 사건을 통해 이슬람주의 진영의 저항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강경정책을 고수할 수가 없었다. 또한 무바라크 정부 출범 직후 이집트에서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지자 1984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취하였다. 무슬림 형제단 또한 정부와의 대립 관계를 지양하고, 1984년 총선에 참여하는 등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양측 간의 관계는 2011년 ‘아랍의 봄’까지 지속되었다(Yerkes 2006, 6; Wickham 2015, 222).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처음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의 기존 정권들을 붕괴시키면서 역내 정치 지형을 흔들어 놓았다. 이집트도 무바라크의 장기 집권에 대해 2010년 말부터 본격적인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이런 국민적 압력의 결과 무바라크 대통령은 2011년 1월 25일 결국 사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군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 SCAF)의 관리 하에서 실시된 총선(2011년 11월-2012년 2월)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자유정의당(Freedom and Justice Party: FJP) 등 이슬람계 정당들이 70%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24일 실시된 대선에서 자유정의당 후보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주의 정권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무르시 정부 주도하에 이슬람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헌법이 전체 투표율 32%중 63.2%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2013년 5월 무슬림 형제단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전면 등장하자, 반(反) 무르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황병하 2012, 95-97).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이집트 군부는 2013년 7월 3일 군부 쿠데타로 통해 무르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무슬림 형제단을 강제 해체시켰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군 총사령관과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시시(Abdel Fattah Saeed Hussein Khalil el-Sisi)가 97.91%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집트 군사정권이 복원되었다.

이처럼 무슬림 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이슬람주의 운동은 세속 군사



정권과 끊임없는 대립 관계를 지속해왔다. 종교의 정치 영역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한 이집트 세속 정권은 이슬람 종교 진영에 대한 유희책의 일부로 제한적인 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슬람 종교 진영 내지 이슬람주의 세력의 국가 권력 및 정치 영역의 개입을 적극 저지하였다. 이런 양 측의 갈등은 2016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 2. 세속 공화정체제: 터키 - 갈등과 적응

터키에서의 이슬람주의 운동은 이집트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민족주의 세력 및 군부와 이슬람주의 진영 간의 기본 대립 구도는 유사하나 그 후 이슬람주의 진영의 정치 제도권 진입과 정권 장악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이미 18세기부터 발칸 반도와 그리스, 헝가리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시작하였으며, 제1차 대전의 패배를 기점으로 제국의 반열에서 일개 중동의 국가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무스타파 케말은 이미 제국으로서 생명을 다한 오스만 제국을 부흥시키기 보다는 터키 민족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선택하였다(Toprak 1981, 124). 무스타파 케말은 오스만 제국의 유산을 청산하고, 제국을 지탱해온 이슬람 및 종교적 전통과의 과감한 단절을 하나의 역사적 사명으로 삼았다. 따라서 케말은 이슬람을 대치할 새로운 국가 통합 이념으로서 터키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가 개조 차원에서 과감한 서구화 및 근대화정책을 추진하였다(Erik-Jan 2004, 107; Dalacoura 2011, 150).

무스타파 케말이 1923년 세운 공화인민당(the Republican People's Party: RPP)은 1950년대 초반까지 일당체제하에서 터키를 통치하였다. 이에 대해 이슬람 종교 진영은 케말의 근대화 정책에 거세게 반대하였다. 1930년대 이슬람 종교 진영은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당시 민족주의자 쿠빌라이(Kubilyay)가 이슬람 종교 진영으로부터 살해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민족주의 근대화에 기반한 케말주의

(Kemalism)는 이슬람 진영을 압도하였으며, 이슬람 억압 정책은 1938년 케말 사후 그의 후계자인 이노누(Inonu)가 집권한 이후 1940년대까지 더욱 강화되었다(장병욱 2008, 210).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다당제의 도입과 함께 실시된 1950년 총선에서 멘데레스(Adnan Menderes)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the Democratic Party)이 공화인민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하자 정치-종교 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친 이슬람 노선을 추구했던 민주당은 전체 의석 487석 중 무려 408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의 승리에는 공화인민당의 장기 집권과 과도한 서구화 정책 외에도 공화인민당의 반 이슬람 정책에 대한 반감과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종교 보수 진영의 반발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40년대 후반 들어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종교 정당들이 출현하면서 이슬람 종교 진영의 정치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대대적인 모스크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슬람 관련 신문, 잡지 등의 종교 언론 매체 활동도 활발하였다. 따라서 1960년 터키 군부 쿠데타의 발발로 민주당 정부가 붕괴되기 전까지, 민주당 집권 10년은 이슬람 종교 진영이 터키 사회 전반에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시기였다(Yavuz 2003, 60).

그러나 근대화 및 세속화의 전통적인 주도 세력이었던 터키 군부는 터키 사회의 광범위한 이슬람화를 커다란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터키 군부는 1960년 5월 27일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키는 한편 멘데레스 수상 및 민주당 주요 지도부를 터키 헌법의 세속주의 정신을 위반한 혐의로 처형하였다. 또한 그해 10월 총선에서 군부의 지지를 받던 공화인민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연정 구성에 실패하는 등 정국 불안정은 계속되었고, 1965년과 1969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후신인 정의당(Justice Party)이 집권에 성공하였다. 정의당은 그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구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 해금을 실시하고 감옥에 있던 이슬람주의 성향 정치인들을 대거 석방하였다. 이런 정치 조치들은 당연히 군부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정의당과 군부간의 정치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1971년 군부의 제2차 쿠데타로 다시 정의당 정부



는 붕괴되고, 2년 후 실시된 1973년 총선에서 공화인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공화인민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당시 종교계의 지지를 받던 민족구국당(National Salvation Party: NSP, 1972년 창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Margulies & Yildizoglu 1997, 148).

민족구국당은 1970년 창당된 민족질서당(Party for National Order: PNO)의 후신으로 향후 70년대 터키 이슬람주의운동을 주도하면서 급성장하였다. 민족구국당은 이슬람 모독법의 제정을 주장하였으며, 터키 정부의 이슬람회의(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헌장 서명을 주장하는 한편, 터키의 유럽 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y Community)가입을 반대하고 대신 무슬림 경제공동체(MEC: Muslim Economic Community)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슬람화는 결국 1980년 제3차 군부 쿠데타로 이어졌고, 민족구국당의 해체와 함께 이슬람 원리주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구금이 이뤄졌다. 군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95년 총선에서 민족구국당의 후신인 복지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12년 만에 이슬람주의 정당이 재집권하는데 성공하였지만, 터키 헌법 재판소는 1988년 복지당의 정강이 터키 세속주의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명분하에 정당 해산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터키 헌법 재판소는 복지당의 후신인 VP(미덕당, Virtue Party)가 99년 총선에서 15.4%의 득표율과 함께 원내 제3당이 되자 똑같은 명분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장병욱 2008, 214; Mandaville 2014, 167).

2000년대는 군부와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 간의 관계가 역전되는 시기였다. 군부의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전 이스탄불 시장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을 중심으로 한 VP내 강경파들은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을 창당하고 2002년 3월 총선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개 이상의 정당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에서 35%라는 놀라운 득표율과 함께 총 550개 의석 가운데 과반수 의석이 훨씬 상회하는 352석을 차지하며 단독 집권정당이 되었다. 특히 에르도안은 이슬람주의 색채를 완화한 가운데 정의개발당을 세속적 성향의 민주적 보수주의 정당으로 만들었다(Tepe

2005, 68-92). 이런 정의개발당의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은 이슬람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엘리트 및 사회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에르도안은 유럽 연합 가입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시장 경제 활성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의개발당의 모(母)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당과 VP와는 차별적인 정책이었다(Yavuz 2003, 256; Nasr 2005, 23).

그리고 연이은 2007년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정의개발당은 세속주의 헌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착수하였다. 에르도안은 정교 분리에 기초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군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였다(Mandaville 2014, 172). 에르도안의 집권 이후 터키 사회는 급속도로 보수화와 함께 탈세속주의 경향을 띠었다. 이런 일련의 정책 및 정치 조치들은 정의개발당이 중도 보수주의 정당인지 이슬람주의 정당인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일부에서는 정의개발당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NATO 회원국으로서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식 입법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개발당을 이슬람주의 정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정의개발당이 코란을 학교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거나 여성 공직자들의 히잡 착용 금지를 개정하는 등 이슬람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슬람주의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 그리고 IS의 등장은 정의개발당이 종교적 보수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외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Mandaville 2014, 174-175).

따라서 터키 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터키 이슬람주의 운동은 정치와의 관계에서 세속주의와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해왔다. 즉 1950년대까지는 세속적 민족주의와 서구식 근대화에 바탕을 둔 아타튀르크 체제가 작동되었다. 그러나 이후 터키 이슬람주의 정당들은 군부의 강력한 견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를 통한 제도 정치에 끊임없는 진입을 시도하였고, 몇 차례에 걸쳐 집권에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노선을 선별적으로 지향하면서 세속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이슬람주의 정당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Tepe 2005, 76).

### 3. 이슬람 왕정체제: 사우디아라비아 - 정치권력과 의 동맹

근대 국가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는 18세기 사우디 가문 출신의 네지드(Nejd) 지역 부족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사우드(Muhammad Ibn Saud)와 한발리파 이슬람 법학자였던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하브(Muhammad Ibn Abdul Wahab)간에 맺은 정치-종교 동맹에서 출발하였다. 1744년 리야드 인근에 디라야를 근거로 한 빈 사우디는 와하브와의 정치-종교 전략적 동맹을 맺고 그의 영향력을 사우디 반도 전 지역에 확대시켰다. 19세기 말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사우드 왕조는 1922년 영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1932년 9월 23일 당시 쿠웨이트 망명에서 돌아온 압둘아지즈 빈 압둘라흐만 이븐 사우드(Abdul-Aziz bin Abdulrahman Ibn Saud)가 중심이 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창건하였다(정상률 2016, 192-193).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가 1953년 사망하고 장남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Saud bin Abdul-Aziz)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다. 사우드가 제2대 국왕으로 오른 1950년대 중동은 반제국주의와 아랍 민족주의 운동이 분출되었고, 혁명의 기운이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1953년 나세르가 이집트 공화국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주의에 근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집트 대통령에 오른 나세르는 1956년 제2차 중동 전쟁의 승리로 범아랍주의 기치 아래 중동 지역 맹주로 등장하였다.

이런 대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우드 국왕은 국내 정치 안정화의 일환으로 각료 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집단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종교 진영은 사우드 국왕의 개혁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우디-와하비 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우드 국왕의 정치 개혁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와하비 진영은 1964년 사우드 국왕을 폐위시키고, 보수 성향의 이븐 사우드 이복 동생인 파이잘 빈 압둘아지즈(Faisal

bin Abdul-Aziz)를 국왕에 즉위시켰다(Mandaville 2014, 218). 파이잘 국왕이 즉위한 때는 이집트에서 불기 시작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중동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파이잘 국왕은 이런 세속적 사회주의 혁명에서 걸프 지역의 보수 왕정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이슬람주의를 주창하였다. 특히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중동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우디 중심의 순니파 진영과 이란 중심의 시아파 진영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는데, 사우디는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구사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범이슬람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Mandaville 2014, 216).

사우디의 공격적 범이슬람주의 정책은 국내외적으로도 이유가 있었다. 먼저 이슬람 교리적 시각에서 왕정체제는 신학적 근거가 약한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우디는 국내적으로도 더욱 엄격한 이슬람 통치 체제를 지향하였다. 그리고 당시 국제 냉전 구도 속에서 친 소련 정책을 추구했던 중동 공화정 체제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우디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진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안보 전략적 동맹 관계는 서구 기독교 진영을 반 이슬람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슬람주의 시각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사우디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범이슬람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사우디의 정치-종교 간의 딜레마 상황은 1990년 제1차 걸프 전쟁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즉 1990년 걸프 전쟁을 계기로 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함으로써 이는 안보와 종교 간의 양립 불가능한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AI-Rasheed 2002, 167).

사우디 내 정치-종교 긴장은 1990년대 사흐와 운동(the Sawha: Awakening)으로 더욱 깊어졌다. 사우디의 사흐와 운동은 이집트 이슬람주의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50~60년대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거 사우디로 피신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사우디 내 종교 교육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이슬람주의 사상을 전파시켰다. 그들의 이슬람주의 개혁 실천사상



은 이슬람 원리주의인 와하비즘과 융합되며 더욱 급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사우디 왕정과 장기간 동맹관계를 구축해왔던 정통 올라마 진영에 대해 도전하면서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즉 사흐와(The Sawha: Awakening) 운동은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살라피 운동이나 문자주의 중심의 와하비 운동과는 달리 무슬림 사회의 세속화내지 서구화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특히 기독교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와하비 진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홍미정 2014, 63-66; Mandaville 2014, 221).

2001년 9/11테러는 사우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사우디 내 알카에다 동조 인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를 요구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알카에다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함께, 급진 이슬람주의 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탈급진주의 프로그램(Deradicalization Program)을 발표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우디 국민들이 이슬람 급진주의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국민 이념 교육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제공, 혼인 지원금 등 다양한 사회 혜택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불안정 정국 속에서 80세라는 노령에 국왕에 취임한 압둘라(Abdullah Bin Abdul Aziz)는 사회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사우디 최초로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이 선거를 통해 여성의 참정권도 최초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사법개혁을 단행해 독립 재판소를 설립하여, 종교 진영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바람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에 비해 사우디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리 큰 정치적 변동을 일으키지 못했다(최영철 2015, 78-81). 사우디 또한 아랍 민주화가 발생한 여타 아랍 국가들처럼 정치 부패 및 높은 청년 실업률과 같은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사우디 정부는 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 확대 보장, 사회 보조금 지원 등 약 1조원에 달하는 사회 안정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대규모의 민중 봉기는 발생하지 않았다(황병하 2016, 235-239; Lacroix 2004, 345-365).

결론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체제 속에서 출범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종교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약화된 구도를 지녔다. 사우디 왕가는 올라마의 정통 종교 진영에 대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종교 지도자 회의를 통해 보장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왕정체제에 대한 종교적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이런 양 진영 간의 합의된 이슬람 정치체제는 일부 급진 이슬람주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왔지만, 사우디식의 체제가 향후 계속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대부분 석유 수입에 의존한 국가 경제가 지속적인 국제 유가 하락과 같은 외부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사우디 또한 다른 국가들처럼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 4. 세속 왕정체제: 요르단 - 조합주의 협력관계

요르단 이슬람주의 운동은 1945년 요르단에 무슬림 형제단 지부(이하 요르단 MB)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이집트 MB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및 서안 지구, 하이파, 예루살렘 등지에 MB의 지부를 설립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당시 요르단 국왕 압둘라 1세(Abdullah I bin al-Hussein)는 MB의 역할과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Noyon 2003, 84).

이러한 양측의 협력관계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단일화된 입장을 취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즉 요르단 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왕정체제를 폐하려고 하자, 압둘라왕은 이들 진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강경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요르단 MB 진영 또한 이념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타파할 대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요르단 왕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동맹관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요르단 MB는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친 왕정 사회 세력으로서 의료, 교육, 종교 등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구휼 활동에 전념하였다. 이에 대해 요르단 왕정은 정치 안정을 이유로 대부분의 국내 정치 사회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

켰으나 오로지 요르단 MB에게만은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런 양 측의 협력 관계는 요르단 MB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은 이상 계속 지속되었다(Mandaville 2014, 117).

그러나 이러한 협력 관계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들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 요르단은 경제 상황 악화와 함께, 정부의 심각한 재정 적자, 물가 인상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런 경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후세인 국왕은 IMF의 재정 관리 체제를 수용하면서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Robinson 2004, 166-170). 그 결과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고, 유가, 밀 등 식량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반정부 시위와 소요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특히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요르단 왕가의 부패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내외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요르단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다(Milton-Edwards 1996, 88-100).

요르단 정부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993년 총선 실시 등이 포함된 정치 민주화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1989년 첫 총선 후 치러진 선거에서 요르단 MB는 공식 정당을 창당하기 보다는 대리 정당인 이슬람행동전선(Islamic Action Front: IAF)을 창당해 총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 친정부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과반수이상 당선되고 대신 이슬람행동전선은 17명밖에 당선되지 않았다. 이슬람행동전선의 참패는 총선 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중복 투표제 대신에 일인 일표제가 적용됨으로써 부족 중심의 친 이슬람 성향의 지지표가 줄었기 때문이었다(Milton-Edwards 1991, 88-108).

1999년 후세인 국왕의 서거 후 그의 아들 압둘라 2세(Abdullah II Ibn al-Hussein)가 왕위에 올랐다. 압둘라 국왕 체제가 출범했을 때 요르단을 둘러싼 대외적 정치 환경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요르단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던 팔레스타인 분쟁이 2001년 제2차 인티파다를 통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팔레스타인 난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요르단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압둘라 국왕은 불안정한 주변 정세에 대처한다는 명

목 하에 의회를 해산하고 2001년 총선 연기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임시 칙령을 발표해 요르단 국내 정국을 임시 정국 체제로 전환하였다. 2003년 실시된 총선에서 이슬람행동전선은 17석을 차지한 반면 친왕정 진영들은 의석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2003년 총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슬람행동전선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때 정적이었던 세속주의 정당 및 좌파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 진영과 정치 연대를 형성하였다(Ryan & Schwedler 2004, 138-140).

그러나 이런 이슬람행동전선의 대응은 요르단의 정국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강하지 않았다. 비록 야당 진영이 국왕이 제안한 법안들을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의석수에서 열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야당 진영 간의 정치적 연대 또한 각 진영의 정치 이념 및 노선의 차이로 인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압둘라 국왕이 의회 해산을 결정하고, 2009년 총선을 2010년으로 연기하자 이슬람행동전선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이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2010년 총선 불참과 함께 2013년 총선 참여도 거부하였다. 이슬람행동전선의 잇따른 선거 불참은 다른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즉 요르단의 중도 정당인 HW(Hizb al-Wasat: the Central Party)가 이슬람행동전선 등 야당 지지표를 대거 흡수하면서 요르단의 대표 야당 정당으로 등장하였다(Robinson 1998, 169-174).

이런 가운데 요르단 왕정은 2010년대 이슬람주의 진영의 정치적 도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비대한 공공분야와 막대한 재정 적자는 이미 요르단의 경제 성장을 막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투자 감소와 함께 외국인 관광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장기 경기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외에도 사회 빈부 격차 및 사회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 등은 요르단 사회의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 및 난민 문제, IS 등을 포함한 외부 이슬람주의 세력들의 국내 침투는 이미 요르단 왕정 체제의 강력한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 IV. 국가체제별 이슬람주의 운동의 비교 연구

### 1. 세속 공화정 체제하 이슬람주의 운동: 갈등과 적응

세속 공화정 체제인 이집트와 터키의 경우 세속주의 정권과 이슬람주의 진영 간의 대립 갈등관계가 확연히 나타났다. 특히 이집트와 터키는 근현대 역사에서 왕정체제의 붕괴, 군부 쿠데타 발발, 민족주의 및 공화정 체제 수립을 공동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정치-종교 관계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았다.

무슬림 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이슬람주의 운동은 세속 정권과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세르 혁명이전 이집트 왕정체제하에서 무슬림 형제단은 정치 불간섭의 원칙하에 사회 운동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불간섭 원칙은 1945년 제2차 대전을 전후로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무슬림 형제단은 세속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이집트 군부와 반(反)제국주의 및 반(反)왕정이라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나세르로 대변되는 이집트 군부 또한 무슬림 형제단의 대중 동원력 및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나세르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두 진영은 일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나세르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왕정체제를 전복시키고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면서 이 양 진영 간의 관계는 협력 관계에서 대립 관계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나세르 정권의 근대화 정책은 무슬림 형제단 및 이슬람주의 진영이 추구하는 이슬람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했기 때문에 이 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장병욱 2008, 95-120).

이런 정-교 갈등 관계는 터키에서도 발견된다. 터키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케말 파샤는 이슬람의 영역을 정치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기 위해 서구 근대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나세르처럼 군부 출신이었던 케말 파샤는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는 한편 1924년 칼리프제를 공식 폐지하였

으며, 1928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정교분리를 선언하였다. 탈(脫) 이슬람을 기초로 한 케말주의의 민족 근대화 운동은 당연히 이슬람 진영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케말 파샤와 집권당 RPP는 이슬람을 터키 근대화의 장애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도적 방식을 통해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주의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등과 같은 직접적인 탄압을 통해서 이슬람 진영을 제압하였다(Mandaville 2014, 69-72).

그러나 이집트, 터키 공히 세속적 공화정체제 하에서의 이슬람 종교 진영에 대한 강압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집트는, 나세르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사다트의 경우, 나세르의 강압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즉 나세르 정권은 1961년 통일아랍공화국의 분열과 1967년 6일 전쟁의 패배를 통해 범아랍민족주의가 그 유효성을 이미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다트 정권은 나세르 정권의 범아랍주의를 포기하고 대신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도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다트는 197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을 이집트 국교로 선포하는 한편 그동안 수감되어있던 무슬림 형제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런 유화 정책은 나세르식의 대 이슬람 정책의 포기이자 국내 정국 안정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런 유화적 관계는 사다트 정권 말기와 무바라크 정권하에서 다시 대립 관계로 전환되었고, 양 진영 간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정치적 참여 과정이 배제된 채 갈등 양상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주의 진영이 최초로 집권에 성공한 무르시 정권의 경우, 이슬람 요소가 반영된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지탱하지 못하고 군부에 의해 붕괴되었다(Beck 2013, 31-33).

터키의 정교 관계 또한 이집트와 유사한 행태로 진행되었다. 군부로 대변되는 세속주의 진영과 이슬람주의 진영 간의 갈등은 지속적인 대립관계로 이어졌다. 즉 1950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공화인민당을 누르고 이슬람 정당인 민주당이 최초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친 이슬람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터키 군부는 터키의 이슬람화를 지지한다는 명분하에 1960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



켰고, 민주당의 주요 지도부를 세속주의에 근간한 터키 헌법에 위반한다는 혐의를 들어 대거 숙청하였다. 이런 양 진영 간의 대립은 1971년 제2차 쿠데타, 1980년 제3차 쿠데타로 이어졌으며, 터키 군부는 민주당의 후신 정당들(민족구국당, 복지당, VP)의 지도부를 체포 구금하는 등 지속적인 탄압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에르도안과 VP의 후신 정당 정의개발당이 2003년 집권에 성공하면서 양 측 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즉 에르도안은 정의개발당을 이슬람주의 정당에서 세속적 성향의 보수정당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정치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가입 시도 등과 같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실용노선을 추진하였다(White 2012, 91-92).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터키 군부에 대한 전격적인 검찰 조사를 단행함으로써 군부의 정치 영향력을 거의 제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정의개발당의 정치 노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성공은 정치-종교 갈등 관계에서 이집트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 2. 왕정체제하의 이슬람주의 운동: 협력주의적 이슬람주의 운동

요르단과 사우디는 비록 같은 왕정체제였지만 요르단의 경우 완전한 세속 왕정체제인 반면 사우디는 이슬람적 요소가 더 강한 왕정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종교간 관계에서도 유사성보다 상이성이 더 나타났다. 요르단에는 1945년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지부가 설치되어 이슬람주의 운동이 다른 곳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다. 당시 요르단 국왕이었던 압둘라 1세가 무슬림 형제단과의 협력 관계를 일찍 선언하였기 때문에 요르단 왕가와 무슬림 형제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호 협력관계가 많이 진전되었다. 요르단 왕가는 요르단 내 아랍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무슬림 형제단과도 정치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이런 협력관계는 일종의 조합주의(corporatism)의 성격을 많이 띤 것으로 무슬림 형제단이 요르단 왕가의 통치에 협력하는 대신 요르단 왕가는 무슬림 형제단에게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특

권을 부여하였다.

이런 양측의 협력관계는 1989년 후세인 국왕이 즉위하고 난 후 변화를 겪었다. 당시 요르단은 왕가의 부패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국 불안정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를 계기로 요르단 무슬림 형제단은 요르단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무소속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원내 진출에 성공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양 진영 간의 긴장 관계는 1991년 제1차 걸프전쟁, 1991년 마드리드 평화회담,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요르단 이슬람주의 운동은 2001년 제2차 인티파다와 요르단 내 민주화 요구 등을 거치면서 다른 국가의 이슬람주의 운동에 비해 더디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인 정치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출범 때부터 이미 와하비즘이라는 강력한 국가 이념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정교의 강력한 일치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왕가와 이슬람 종교 진영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이슬람 종교 진영은 사우디 왕가의 개혁 정책이나 친미 중심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예를 들어 1964년 개혁 성향의 이븐 사우드의 폐위와 함께 보수 성향의 파이잘 국왕이 왕위에 즉위하는데 올라마 진영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종교 진영의 사우디 왕가에 대한 정치적 견제는 사우디 왕가와 이슬람 종교 진영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우디는 성지인 메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아랍민족주의에 대항해 범이슬람주의를 주창하며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 세속 공화정 진영의 대외적 도전을 억제해야만 했다. 1990년 제1차 걸프전쟁은 사우디의 정치-종교 간의 관계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제1차 걸프 전쟁을 통해 범이슬람주의의 중심지인 사우디는 현대판 십자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이슬람 종교 진영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사흐와 운동으로 대변되는 신진 이슬람주의 운동은 친왕정 성향의 전통적 올라마 진영을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외에도 오사마 빈라덴을 중심으로 한 ARC는 반정부 전선을 주도하였으며, 후에 ARC는 알카에다 사우디 지부 출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사우디 왕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급진적 이슬람주의 진영을 제거하는 한편 사흐와 운동의 주요 지도부를 정부 산하 종교 기관에 흡수하면서 이슬람주의 진영을 무력화시켜나갔다. 특히 사흐와 운동이 사우디 왕가의 집요한 흡수 전략으로 인해 초기의 비판 세력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반(反)사우디 왕가 진영은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따라서 요르단과 사우디 내에서 이슬람의 차지하는 정치 사회적 수준은 각각 다르지만 이슬람주의 운동이 체제 도전적이거나 체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체제 순응 세력으로 남았다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원인은 왕정체제라는 보수적 정권이 이슬람주의 진영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왕정 체제의 안정을 약속받고 대신 종교, 교육 분야 등에서 종교 진영에 독점적 특권을 부여하는 등 일종의 공생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3. 이슬람주의 운동의 세대 분열 및 다양화

이슬람주의 운동은 시기별 정치적 환경 및 상황 변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이런 발전은 이슬람주의 운동의 확장성과 대중성을 강화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운동의 급진화로 인해 운동의 고립성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1928년 창립된 무슬림 형제단은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슬람주의 운동이었다. 초기 무슬림 형제단은 정치 영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사회 운동에 집중하였다. 이런 운동의 방향은 교육, 의료, 복지 및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대중적 지지층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다트 정권하에서 무슬림 형제단은 내부 노선 분열을 겪었다. 즉 나세르의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강압 정책 이후, 사다트 정권은 이슬람주의 진영에 대



한 유회책으로 친 이슬람 노선을 취하였지만, 사다트 세속주의 정권하에서 이슬람 정책의 한계는 분명하였다. (Dalacoura 2011, 132-135). 이 시기 형제단 내부의 신진 세대들은 사회 운동에 중점을 둔 구세대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소극적인 사회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 세력은 이슬람 지하드(Islamic Jihad)등 과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 조직을 만들며 기존 구세대와 차별화된 노선을 걸었다. 무슬림 형제단 내부의 세대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 대립은 이집트의 각 정치적 격변기마다 발생하였다. 즉 이슬람 지하드 외에도 90년대 중반의 “Middle Generation”이라고 불렀던 신진 세대들의 정치 참여 주장,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민주화 운동의 적극 참여를 주장했던 젊은 운동가 진영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Wickham 2015, 218).

이런 경향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르단에서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요르단 무슬림 형제단 경우 초기에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처럼 정치 영역의 개입을 자제하는 한편 요르단 왕정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런 협력적 관계는 1990년대 초반 요르단 형제단의 소극적인 정치 활동에 불만을 품은 신진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1993년 이슬람행동전선을 조직하면서 이슬람주의 운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이슬람행동전선은 당원 자격이 아닌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에 참여하였지만, 이슬람행동전선의 출현은 요르단 이슬람주의 운동의 전환점이었다. 따라서 이슬람행동전선은 요르단 정부의 집요한 견제와 탄압으로 대중적인 정치조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이슬람행동전선의 등장은 분명 요르단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요르단 내 야당진영의 주축 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Schwedler 2006, 158-162).

사우디는 근대 국가 형성기부터 이슬람 국가로 출발하였지만,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 개혁의 대상이었다. 사우디는 올라미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기득권층 종교 진영이 사우디 왕가와 강력한 정치적·종교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이슬람에 기반한 정교일치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제1차 걸프 전쟁이후 미군이 지역 안보를 위해 사우디에 본격적으로 주둔하면서 사흐와 운동을 중심으로 정부 비판 세력이 등장하였다. 사흐와 운동은 사우디 원리주의인 와하비즘과 무슬림 형제단의 적극적 행동주의가 결합한 운동으로 사우디 왕정의 친미 정책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인 구세대 올라마 종교진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사흐와 운동진영과 함께 ARC 또한 급진적 이슬람주의 운동을 이끌면서 사우디 왕정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하였다(Kepel 2004, 175).

터키 이슬람주의 운동의 경우, 같은 세속 공화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2012년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 무르시를 중심으로 한 자유정의당이 이슬람주의 정권을 창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시시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군부 진영에 의해 무너지면서 이슬람주의의 정치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터키는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이 터키 군부의 견제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 제도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으며, 당 정체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한 정의개발당은 2002년 총선 승리 후 터키 집권당으로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비록 정의개발당이 이슬람주의 노선 대신에 세속적 보수 정당으로 당 정체성을 전환했다는 평가는 있지만 정의개발당의 정치적 뿌리는 이슬람주의 정당에 기원한 것은 사실임에 분명하다.

#### 4. 체제 저항 운동 및 대안세력으로서의 이슬람주의 운동

이집트, 터키, 사우디, 요르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주의 운동은 기존의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체제 저항이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존 제도권 정치 진영에 대한 정치 도전 세력의 역할을 하였다. 중동 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은 공화정 체제이든 왕정 체제이든, 그리고 세속주의 체제이든 이슬람 종교 체제이든, 극히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민주

화 과정에서는 자유주의 정치 진영이 시민 사회와 연대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대안 세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중동 정치에서는 체제 대안세력인 자유주의 및 시민 사회 진영의 존재가 부재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이슬람주의 진영이 그 정치적 공백을 메꾸어 왔으며, 심지어 자유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까지 이슬람주의 진영 중심의 정치 연대에 편입시키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정상률 2004, 28-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동 민주화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튀니지의 엔나흐드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은 집권의 경험 이 전무 할뿐만 아니라 집권 능력이나 국정 능력에 대해 많은 의문과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과연 이슬람주의가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상호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이슬람주의 진영이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대안 세력으로 국민적 합의를 획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V. 결론

이슬람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띠며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적응해오며 발전해 왔다.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서구 제국주의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중동의 모든 영역에서 잔존하고 있다. 100년 전에 체결된 사이코스-피코 협정체제는 오늘날 21세기까지 중동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세기 전 서구 세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된 중동의 정치 지형은 아랍 민족주의 및 아랍 사회주의라는 내부적 정치 이념의 도전과 저항에 의해 어느 지역보다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틈새에서 출현한 이슬람주의 운동은 중동의 정치 스펙트럼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이슬람주의는 중동 정치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존재하고 있으며, 세속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강력한 세속주의 전통 속에서 무슬림 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은 이집트 왕정체제에서부터 현 시시 정권에 이르기까지 세속 정권의 강력한 견제와 통제 속에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던 노력들이 좌절되기도 하였으며 아랍의 봄 이후 일시적인 집권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류이자 현대 이슬람주의의 운동을 담당하는 한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의미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터키의 경우 이집트와는 달리 이슬람주의 운동이 제도권 정치권에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집권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터키 이슬람주의의 진영은 케말주의로 대변되는 강력한 터키 세속주의 전통 속에서 사회 활동 단체가 아닌 정당이라는 정치 조직을 성공적으로 정치 제도권 속에 정착시켰다. 비록 군부의 정치 개입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지도부가 투옥되는 등 정치탄압을 받았지만 이슬람주의 노선을 완화하고 보수 정당으로 정치 노선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2002년 총선에서 성공적으로 집권하였다.

이슬람 왕정체제 속에서 출발한 사우디는 이슬람 종교 진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동의 근대 국가가 경험하는 민족주의와 세속적 근대화 대신에 와하비즘이라는 강력한 국가종교체제는 국가와 종교 간의 갈등 요소를 대부분 잠식하였다. 비록 1990년대 이후 무슬림 형제단의 실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회와 운동이 일어났기 했지만 사우디의 이슬람 왕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요르단 왕정체제에서도 발견된다. 요르단의 경우 사우디의 이슬람 왕정체제와는 달리 비록 세속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르단 왕정 초기 이슬람주의 진영과 조합주의에 가까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요르단 MB로 대변되는 이슬람주의 운동 조직은 이슬람행동전선이라는 정당 조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부 성향의 사회 조직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이슬람주의 정체성과 정치 지향성 및 현실 정치의 성공 여부에 대

한 학문적 합의를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주의는 분명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역동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슬람주의 운동은 초기 시기의 단순한 사회 운동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 활동 영역을 국민 국가 및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주의 운동은 그 운동의 성격이 살라피 식의 이슬람 복고주의이든, 이슬람 개혁 성향의 무슬림 형제단 운동이든, 이란과 사우디의 국가 주도형 이슬람주의 체제이든, 나아가 탈국가-탈국경 식의 알카에다 및 이슬람 국가(The Islamic State) 형태이던 중동 정치를 지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주의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와 함께 민주주의와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 시각에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중동 정치, 이슬람주의,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장병욱. 2008. 「이슬람 원리주의와 중동정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상률. 2004. 「중동 이슬람국가들의 정치문화와 민주화 논쟁」. 『국제지역정보』.
- \_\_\_\_\_. 2014. 「중동 근대 국민국가 건설-근대 국민국가, 민족국가, 이슬람 간 상호 수용과 배제」. 『중동학회논총』, 제34권 제4호.
- \_\_\_\_\_. 2016. 「사우디아라비아 근대 국민국가 형성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통권 제46호.
- 최영철. 2015. 「아랍의 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개혁」.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5-1집.
- 홍미정. 2014.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개혁운동과 새로운 정치지도」. 『중동연구』, 제33권 1호.
- 황병하. 2012. 「이집트 자유정의당의 등장과 이슬람주의 정당의 미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2-2집.
- \_\_\_\_\_. 2016. 「아랍 스프링 전후 사우디 청년층의 변화 요구와 향후 전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1집.

### [영문자료]

- Al-Rasheed, Madawi. 2002. *A History of Saudi Arab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 Shmuel. 1998. *The Muslim Brotherhood in Jordan*. DIANE Publishing

- Company.
- Beck, Martin. 2013. "The July 2013 Military Coup in Egypt: One Normative Clarification and Some Empirical Issues," Center for Mellemøststudier: Syddansk University. September.
- Berman, Sheri. 2003. "Islamism, Revolution, and Civil Society," *Perspectives on Politics* 1 (2).
- Bonney, R. 2004. *Jihad: From Qur'an to Bin Lade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Brumberg, Daniel. 2002. "Islamists and Politics of Consensus," *Journal of Democracy* 13.
- Dalacoura, Katerina. 2011. *Islamist Terrorism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dson, Lawrence. 1998. *Islamic Fundamentalism*.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Dawisha, Aheed. 2002. *Arab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Triumph to Despai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rik-Jan Zürcher. 2004. *Turkey: A Modern History* (Revised ed.). I.B.Tauris.
- Husaini, Ishak Musa. 1956. *The Moslem Brethren*. Beirut: Khayat's College Book Cooperative.
- Kepel, Gilles. 2003. *Jihad: The Trail of Political Islam*. Belknap Press.
- Lacroix, Stéphane. 2004. "Between Islamists and Liberals: Saudi Arabia's New "Islam Liberal" Reformists," *Middle East Journal* Vol. 58, No.3.
- Maajid Nawaz. 2015. *Islam and the Future of Tolerance: A Dialogu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Mansfield, Peter. 2013. *A History of the Middle East* (4 ed.), Penguin Books.
- Mandaville, Peter. 2014. *Islam an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Margulies, R. Yildizoglu. 1997. "The Resurgence of Islam and the Welfare party in



- Turkey,” in J. Beinin, J. Stork (eds), *Political Islam: Essays from Middle East Report*, New York: I.B. Tauris.
- Milton-Edwards, Beverley. 1991. “A Temporary Alliance with the Crown: The Islamic Response in Jordan,” in J. Piscatori (ed.), *Islamic Fundamentalisms and the Gulf Crisis*, Chicago, IL: The Fundamentalism Project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
- \_\_\_\_\_. 1996. “Climate of Change in Jordan’s Islamist Movement,” in A.S. Sidahmed, A. Ehteshami (eds), *Islamic Fundamental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Mura, Andrea. 2014. "The Inclusive Dynamics of Islamic Universalism: From the Vantage Point of Sayyid Qutb’s Critical Philosophy," *Comparative Philosophy* 5 (1).
- Nasr, Vali. 2005. “The Rise of Muslim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16.
- Noyon, Jennifer. 2003. *Islam, Politics and Pluralism: Theory and Practice in Turkey, Jordan, Tunisia and Algeria*.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Robinson, Glenn. 1998. “Islamists under Liberalization in Jordan”, in A. Mouddalli (ed.), *Islamic Fundamentalism: Myths and Realities*, Reading, Ithaca Press.
- Ryan, Curtis R. and Schwedler, Jillian. 2004. "Return to Democratization or New Hybrid Regime? The 2003 Elections in Jordan," *Middle East Policy* Vol. XI, NO. 2, Summer.
- Robinson, Philip. 2004. *A History of Jord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age, Ana Belén. 2009. "Introduction to Political Islam," *Religion Compass* 3.5 (2009).
- Schwedler, Jillian. 2006. *Faith in Modernation: Islamist Parties in Jordan and Yemen*. New York Press.
- Tepe, Sultan. 2005. "Turkey's AKP: A Model 'Muslim Democratic' Party?," *Journal*



*of Democracy* Vol. 16, Issue 3.

Toprak, Binnaz. 1981. *Islam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urkey*. Leiden: E. J. Brill.

Wickham, Carrie Rosefsky. 2015. *The Muslim Brotherhood: Evolution of an Islamist Move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White, Jenny. 2012. *Muslim Nationalism and the New Tur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Yavuz, M. Hakan. 2003. *Islamic Political Identity in Turkey*. Oxford: Oxford University.

Yerkes, Sarah. 2006. *What Price Freedom? Assessing the Bush Administration's Freedom Agenda*. Saban Center for Middle East Policy, Analysis Paper 10.

논문접수일: 2016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04일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19일

